

Jung Jihyun

정지현

다목적 헨리

Multipurpose

Henry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TELIER
HERMÈS

정지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부터 예민하게 포착해낸 모든 것들을 전시장으로 끌어들이 긴밀하지만 비정형적인 풍경으로 제시하곤 합니다. 현대인의 삶이 펼쳐지는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도시의 부산물과 폐기물들은 정지현의 작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출처가 모호한 파편들을 수집하고 해체하고 이것을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지현은 각각의 사용자들이 가진 원본의 질서를 교란하고 이것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이 세계에서 작가는 '자신의 손'이라는 물리적 현실에 의지하여 점점 더 낯설고 새로운 층위를 집적해갑니다.

변화가능한, 임시적인 과정으로 제시된 전시장의 풍경은 관람자 개인의 개별적인 감각과 만나 또 다른 풍경으로 번복되고, 이렇게 정지현은 도시와 삶의 공간으로부터 촉발된 불온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듯합니다.

Jung Jihyun brings all the things sensitively grasped from the space of our living into the gallery, suggesting a close and atypical scenery. The starting points of Jung's works are the byproduct and waste of a city that are discovered in each and every corner of urban space of people in this modern world. By collecting, disintegrating and recombining such fragments whose sources are obscure, Jung disrupts the order of the original forms of each object and changes them in his own way. In a world where everything is uncertain and unclear, Jung gradually accumulates unfamiliar and new layers by resorting to the physical reality of "his own hands."

The scenery of the gallery suggested as a changeable and transient course turns into another scenery by encountering individual senses of each viewer. Jung seems to seek for a new order through disquieting attempts triggered by the urban and living space.



다목적 헨리 Multipurpose Henry Installation view

이 세상은 파괴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보자. 서울의 도심, 서울 주변 신도시의 혼허 지나쳐 다니는 거리 곳곳에서 마주쳤던 풍경들을 떠올려보자.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늘 높이 솟아오른 고층 건물들의 입구예,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던 공원의 한가운데에, 교통이 정체된 도시의 차 안에서 내다본 대로변에 자리잡고 있던 것들이 떠오르는가?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조형물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의 중심인 세종대로 사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충무공이순신장군상**¹과 청계광장에 세워진 **스프링**²은 웅장한 스케일로 도심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그 장소를 떠올릴 때 대다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존재감은 그리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다. 아울러, 특별한 형태도, 엄청난 규모도,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은 수많은 조형물들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지조차 않기에, 조형물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공공조각'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조형물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의 삶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보여질 것을 전제로 구상되고 실현된 예술행위를 총칭하는 이 조형물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놓여진 장소의 특정한 의미를 그와 관련된 형상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담당해온 '기념물'이라는 조각의 분야와 그 기원을 공유한다. 지배 권력의 기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던 이러한 기념의 기능은 근대 이후에는 점차 약화되었고, 모더니즘의 어휘는 조형물의 (형태적, 내용적) 추상화를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도시의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 조형물들은 전통적인 기념물과 추상화된 장식품의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물들은 도시의 한가운데를 점유하고 있지만, 도시민의 시선과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한다.

이렇듯 현대의 도시에서 애매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지만, 정지현에게는 '조각'이라는 형식에 대해 계속적인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대상이 된다. 전시의 제목인 다목적 **헨리**에 등장하는 '헨리'는 영국 출신의 대표적인 현대 조각가 헨리 무어(1898-1986)에서 따온 것으로, 이것은, 글자 그대로,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맥락에 등장하는 현대 조각 거장들의 작품(作風)³을 본뜬 조형물과 그 부산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어떤 감정을 함축하고 있다.

도심에서 발견되는 조형물은 거칠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정부나 기관 주도로 건립된 위인 및 순국선열의 동상들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⁴의 시행으로 건축물 앞에 세워진 조형물들이 그것이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자의 경우가 정부표준영정(政府標準影幀)⁵이나 기록물을 참조하고 기념물의 전통과 전형(典型)을 따라 대체로 사실적인 재현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건축물이나 주변 경관과의 조형적인 조화를 고려한 모더니스트(추상) 조각이 주류를 이룬다. 두 부류의 조형물은 제각기 설치 의도와 목적은 다르지만,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장소를 점유하고 있기에 공공성에 근거한 미감(美感)과 미학적 기준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⁶ 정지현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로 공공조형물들이 공유하는

Is this world worthy to be destroyed?

Close your eyes and try to recall your memory. Think of the sceneries you happened to encounter on streets you would easily pass by in downtown Seoul and new towns around it. What is being envisioned? Are those that are placed off the road seen from a car in a congested city popping up in mind, which are at the entrance of a high-rise building, or which are in the middle of a park for a leisurely stroll? In such places always sculpture is found. The **Statue of Admiral Chung Mu Gong Yi Sun Shin**¹ placed on the intersection of Sejongdaero at the center of Seoul and **Spring**² in Cheonggye Plaza exude their presence with their grand scale, but they do not leave that much impression in the mind of most of the people that reminisce the places. Not only that, so many sculptures that are not in any particular forms without an enormous scale and are not placed in noticeable spots are not even recognized by people. Thus, despite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sculptures, they are (semantically) absent.

Such sculptures known as "public art" share our lives and space much more than we perceive. These sculptures referring to the overall artistic practices that are envisioned and realized based on the assumption of being shown in public places of a city usually share their origin with the field of sculpture or "monuments" which have functioned to commemorate or remember a particular incident or figure. The commemorative func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memory of the power in authority gradually diminished after the modern period, and the term of modernism accelerated abstraction of sculptures. Eventually, numerous sculptures that take up urban spaces in today's world are positioned somewhere between traditional monuments and abstract decorations. And although they are placed in the center of the city, they seem to exist by pushing aside from the view and interest of urban people.

As such, public sculptures taking up an ambiguous prestige in a contemporary city, they become such intriguing objects of Jung Jihyun. "Henry" in **Multipurpose Henry** which i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refers to Henry Moore (1898-1986), a representative British modern sculptor. It connotes his sentiment in viewing the sculptures emulating the artistic style³ of modern master that appear in diverse contexts in many places in a city and their byproducts.

Sculptures found in a city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statues of great people, and patriots/veterans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or an institution, and sculptures standing in front of a building by implementing the "art in architecture program."⁴ Although it would be challenging to generalize all, while the former works were produced based on mostly realistic representation by referring to the standardized portraits set by the government,⁵ the latter works are mostly modernist (abstract) sculptures where striking a harmony with buildings or surrounding sceneries was considered. The two types of sculptures have been intended and designed with different purposes, since they dominate public places in the name of "art," they partially share aesthetic sentiments and standards based on

1. 1968년 4월 27일에 당시 세종네거리 제1복지대에 건립된 충무공 조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기금을 헌납했고 친필로 '충무공이순신장군상'이라고 새겼다. 전체 높이 17m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2. 2006년 9월 29일에 준공된 스프링은 클라스 올덴버그(b.1929)와 코사 밴 브루겐(1942-2009)의 공동 작업이다. 높이 20m에 이르는 이 조형물의 설치에는 당시 34억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KT가 기부 형식으로 이 제작비 전액을 부담했다. 스프링의 설치를 둘러싸고 미술계에서는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문화 사대주의, 일방적 관료주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3. 여기에서 언급된 '현대 조각 거장들의 작품'은 헨리 무어로 대표되는 유기적 추상 조각의 흐름을 일괄하며, 주로 전통적인 인체의 형상을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유기체에 대한 은유로서의 덩어리로 제시된 조형물을 총칭한다.

4.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5. 역사적 위인들의 영정과 동상의 형식을 통일하고자 국가 주도하에 그려진 초상화들로, 모든 정부표준영정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지정된 '영정/동상 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1. For the sculpture of Chung Mu Gong established in Green Zone No.1 of Sejong Intersection on April 27, 1968, President Park Chung Hee made a financial contribution and hand-wrote "The Statue of Admiral Chung Mu Gong Yi Sun Shin."

2. It is a collaborative work of Claes Oldenburg (b.1929) and Coosje van Bruggen (1942-2009), which was completed on September 29, 2006. About 3.4 billion won was used for installing the sculpture which was 20m high, and KT sponsored the entire production cost as a donor. Some in the artistic circles stirred controversies on the installation of **Spring**, mentioning public interest of public art, cultural flunkeyism and unilateral red tape.

3. The "artistic style of modern master" mentioned here refers to the flow of organic abstract sculpture represented by Henry Moor, usually encompassing sculptures suggested as chunks of metaphors on organisms by simplifying and abstracting the traditional image of a human body.

4. It is a regulation to encourage a certain percentage of amount out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o be used for installing art works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s or craftworks for those seeking to construct a building of a certain scale.

5. They are portraits pain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to unify funeral portraits and statues for historically great people. All the standardized



바위책 Rock Book
2018, FRP, steel, wood, glass, mixed media, 110 x 100 x 90 cm



테라초 비취 Terrazzo Jade Green
2019, FRP, plaster, steel, 77 x 98 x 76 cm



에그 스택, 테라초, 무거운 돌 Egg Stack, Terrazzo, Heavy Stone (from the left)
2019, Stone, steel, paper, cement, 57 x 150 x 100 cm



80년 만담가의 손 80's Comedian's Hands
2019, Cement, pebbles, marble, 50 x 55 x 50 cm



다목적 헨리 Multipurpose Henry
Installation view



공공조각 파일 Filing Public Parts
2018, Aluminum mesh, vinyl, Dimension variable

이러한 독특한 미감이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본 듯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그 미감을 덧입은 도시의 표면에서 정지현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이면을 고스란히 읽어낸다.

애초의 의도와 목적을 상실하고 현대 사회의 부산물이나 폐기물처럼 도시의 구석구석에 방치되고 유기되어 발견되는 수많은 공공조형물들로부터 출발한 정지현의 의심과 질문은 예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서로 다른 시선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것은 다시 동시대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서로 다른 감각과 취향, 신념의 끝없는 어긋남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공공의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조형물이 다수의 미감을 반영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개개인의 존재를 외면하고 제도라는 권위를 뒤집어쓴 전체주의의 표상일 뿐이며, 결국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허구로 전락하는 지점에서 정지현은 오늘의 현실을 포착해낸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로 가득한 현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가 여전히 현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이것은 진짜도 가짜도 아니며, 과거도 현재도 아니다. 진짜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짜이며, 현재의 내부에 존재하는 과거다. 그리하여 진짜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현재의 연속성을 파괴함으로써, 진짜를 진짜가 아니게 하고 현재를 현재가 아니게 한다. 이 혼돈과 겹침의 지점, 그 잉여의 지점을 정지현은 주목한다.

현대인의 삶이 파생시킨 온갖 부산물과 폐기물들은 지나가버린 도시의 과거이지만 여전히 현재 도시의 풍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풍경의 표면과 그 이면에 예민하게 감응하며 정지현은 도시의 삶이 파생시킨 부산물과 폐기물의 (이제는 그 출처마저 모호해진) 파편들을 수집하고 해체하고 이것을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버려진 광고판이나 구조물들은 해체와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와 쓰임을 부여받고, 쓸모가 다한 전자 제품이나 일상용품은 그 형태를 간직한 채 (혹은 유령처럼 껍데기만 남아) 또 다른 전체의 일부로 결합된다. 이리저리 뒤섞여 부유하듯 존재하는 이상한 것들, '미술'이라고 규정되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마치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논리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사건, 불가해한 것에 대한 사유의 결과로, 전시장은 이런 것들이 그저 가득 놓여 있는 임시적인 어떤 상태일 뿐이다.

정지현은 여기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건물 입구 한 귀퉁이에, 건물 뒤편 후미진 곳에 방치되고 유기되어 보이지 않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도시민의 삶과 기억으로부터 배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공공조형물들의 일부분을 유토(油土)로 옮겨와 다른 수집물들과 재조합하거나, 알루미늄 망을 사용해 순간적으로 형태를 잡아내고 이것으로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형상으로 가설(假設)한 것들이 그것이다. 정지현이 전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온갖 부산물과 폐기물들이 그렇듯이, 방치되고 잊혀진 공공조형물 역시 현재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과거의 흔적이다. 이렇듯 남겨진 과거의 흔적을 해체하고 그 파편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가져와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그러모은 온갖 파편들과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사물들이 가진 원본의 질서는 교란되고 정지현의 방식대로 반복된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로 가득한 현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가 여전히 현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이 세계에서 정지현은 이렇게 자신의 작은 제스처로 이 세계의 표면에 균열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지현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진짜이며 현재인) 물리적 현실인 작가 '자신의 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세계, 과거가 현재를 잠식하는 세계로부터 파편들을 그러모으고 이것을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은 고정적인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존의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계를 창조하고 이를 확고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지현의 '손'은 새로운 질서 속에 안정적으로 고정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능한,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매 순간 모색한다. 그리하여 전시장에는 도시와 삶의 공간으로부터 촉발된 불온한 시도를 통해 모색한 또 다른 질서의 어떤 가능성들이 펼쳐진다.

the public interest.⁶ What attracted Jung's attention is such a unique aesthetic sentiment shared by the public sculptures. And from the surface of a city shrouded with the aesthetic sentiment which is familiar, and yet unknowingly awkward looking, Jung understands the hidden aspects of the reality he confronts.

Jung's doubts and questions that started off from numerous public sculptures discovered by being neglected and abandoned in each corner of a city like byproducts or waste of the contemporary society, while losing their original intent and purpose, reveal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 of seeing and perceiving art. This in turn is led to the visualization of endless mismatching of different senses, tastes and beliefs in viewing and perceiving the contemporaneous reality. True, sculptures taking up the public place seem to reflect the aesthetic sentiment of many, but Jung grasps today's reality where they are nothing more than the representation of totalitarianism in disguise of the authority of institutions by ignoring the existence of individuals, being reduced to fiction under nobody's possession. A reality replete with fakes in disguise of truths, and a reality where the bygone still dominate the present spots—it is neither true nor fake, and neither past nor present. It is a fake existing within truth, and the past within the present. Therefore, it negates truths and the present by destroying the continuity of truths and that of the present. Jung pays attention to such points of chaos and overlap, and those of surplus.

All types of byproducts and waste generated from lives of the contemporary are the bygone past of a city but still form parts of today's urbanscape. Jung Jihyun repeatedly collects, disassembles and reassembles the fragments (whose source has become ambiguous) of byproducts and waste derived from urban living by sensitively responding to the surface and the hidden aspects of such sceneries. Discarded signboards and structures are imposed with new forms and usages through disassembling and reassembling, and no-longer-useful electronic products and everyday life items are combined as parts of some other entirety by maintaining their forms (or having their surface kept like ghosts). Things that are strange that seem to float by being mixed up together and things that are not defined as "art," thereby seeming to be fake are not derived from some logical causalities but result from incidental events and reasoning over the incomprehensible. And the gallery is simply in a state of temporality filled up with such stuffs.

Jung adds another layer on top of them. He casts parts of public sculptures that are not seen by being neglected and discarded in building corners or behind buildings in plasticine, and recombines them with other collected goods, makes some form instantly by using aluminum mesh, and temporarily builds into transient and variable forms. Just like all types of byproducts and waste brought in by Jung into the gallery, neglected and forgotten public sculptures are also the traces of the past that destroy the continuity of the present. As such, the order of the original in each object is disrupted and reversed in Jung's manner in the course of recombining all fragments gathered from different sources by dismantling traces of the past and bringing the fragments in completely different contexts.

Jung makes attempts to cause a crack on the surface of this world with his small gestures in the reality filled up with truth-mimicking fakes, the reality where bygone still take up the present spots and this world where everything is unclear and uncertain. And all of this begins from the "hands of the artist himself," being the only physical reality (bring true and present) Jung depends on. And yet,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recombining fragments from the world where fakes replace truths and the past encroaches the present does not pursue what is fixed. In other words, there is an expectation for a new start towards something which cannot be defined, instead of creating a new system that can replace the existing one and confirm on it. Jung's "hands" seek for a changeable, temporary and unstable state in each mo-

6. '공공성에 근거한 미감과 미학적 기준'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굳이 밝히고 부연하자면, '선물(호평)도 악플(비난)도 아닌 무플(무관심)을 지향하는 감각과 기준' 정도로 갈음할 수 있겠다.

portraits set by the government are designated or lifted in accordance with the deliberation procedure of the "Regulation on the Review of Funeral Portraits/Statues" designated as a directiv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6. The "aesthetic sentiments and standards based on public interest" might be a controversial expression and could be my subjective thought, but it could mean "senses and standards in pursuit of no comment (no interest) instead of favorable (praise) or hate (criticism)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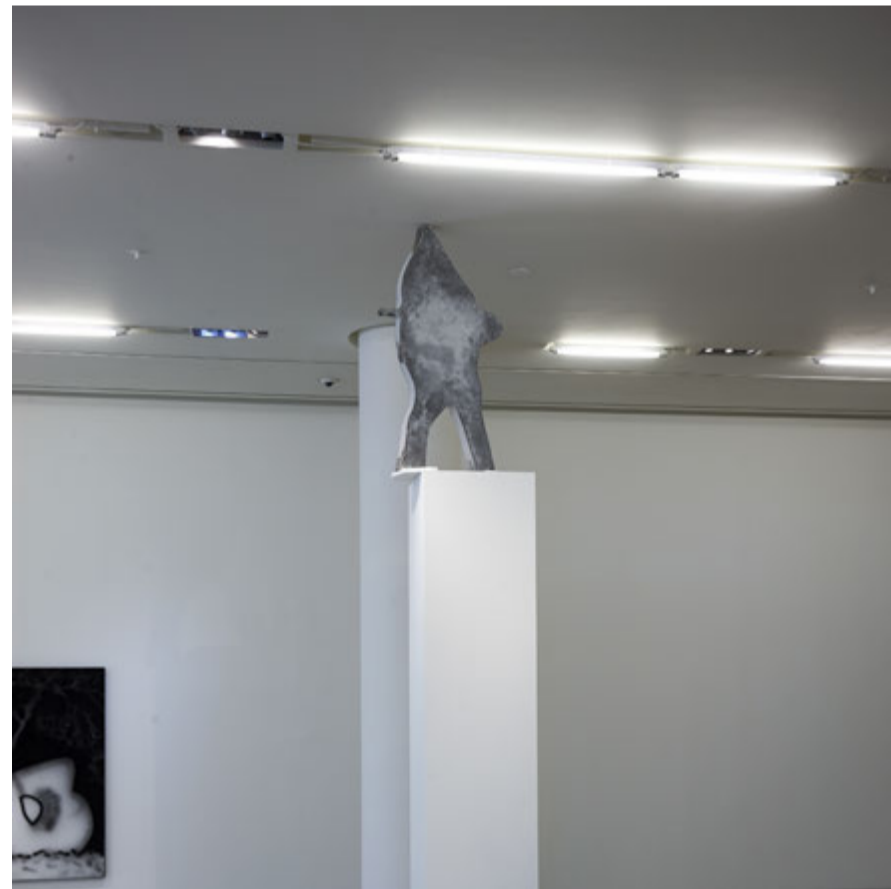
무중력 바위 Anti Gravity Rock
2019, Aluminum mesh, 160 × 170 × 130 cm



마이올 강 Myall River
2019, Mixed media, lighting, Fog Machine, 150 × 140 × 90 cm



스캐너 Scanner
2019, Cement, aluminum, steel, 115 × 105 × 60 cm



동상 A Statue
2016, Gypsum board, cement, 310 × 40 × 40 cm

이렇게 전시장에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 것들이 여전히 '지금'의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풍경들, 관습과 제도에 의해 공고하게 '지금', '여기'에 고착되어 어긋나고 비틀어진 현실을 구성하고 있던 파편들을 해체하고 수집하고 재조합해가는 과정들이 여전히 지난하게 펼쳐지고 있다.⁷ 결국, 전시 다목적 헨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터넷 (이후) 세대가 경험하는 가상/가짜 세계-체제-제도와의 간극-불일치-틈-불화를 물리적인 현실인 자신의 손(수공)에 의지해 화해해가려는 고된 시도의 결과물이며, 획일화되어 익숙해졌던 표피에 감춰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새삼 가시화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여전히, 이 세상은 파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 김윤경

ment, instead of firming up the basis to be stably fixed in a new order. Therefore, the gallery unfolds new possibilities of another order sought through rebellious attempts triggered in urban and living spaces.

As such, the gallery unfolds processes where fragments are demolished, collected and recombined which used to form a distorted and tweaked reality by being fixated "now" "here" due to customs and institutions which do not belong to "now" "here."⁷ Eventually, wouldn't the exhibition *Multipurpose Henry* be a process of visualizing the invisible being hidden by the uniform and familiar surface as well as the outcome of struggling attempts to resort to his own hands (manual crafting) as the physical reality and reconcile with the chasm-discrepancy-crack-discord with the established/existing world-system-institution experienced by the (post) Internet generation living in this world? Now, let's ask the question: Is this world worthy to be destroyed?

— Yunkyoung Kim

7. 전시장의 풍경은 그 자체로 어떤 가능성의 상태이므로, 관람자 개인의 개별적인 감각과 만나 매번 또 다른 풍경으로 반복된다.

7. The scene of a gallery is a state of some possibility, so it is reversed into a different scenery upon each encounter with individual senses of each viewer.



조각기든 Sculpture Garden
2019, Lighting, cement,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더블 데커 Double Decker
2018, Signboard frame, fluorescent tube, steel, fan, Dimension variable



진열장 Display Cabinet
2019, Cement, plaster, mixed media, 116 x 110 x 60 cm



멀티퍼포즈 메탈 스퀘어 Multipurpose Metal Square
2019, Aluminum, steel, LED, 75 x 118 x 120 cm



입간판_M Billboard_M
2019, Foam board, digital print, fan, 110 x 120 x 40 cm



무한 메탈 Infinite Metal
2019, Aluminum, stone, cement
70 x 70 x 70 cm

나무와 동상 Bronze and Trees
2019, Acoustic insulation, hard-gloss paint
120 x 122 x 3 cm



수류탄 든 큰 손 Big Hand with Grenade (front)
2019, FRP, mixed media, 90 x 70 x 60 cm

RS 벤치 RS Bench (back)
2019, Wood, aluminum, monitor, mixed media, 110 x 190 x 135 cm





다목적 헨리 Multipurpose Henry
Installation view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기관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과 "시테의 아티스트" 프로그램, 현대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머전" 프로그램,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처-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고, 까뜨린느 츠키니스가 디렉터를, 2016년 2월부터는 피에르-알렉시 뒤마의 후임으로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 operates nine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and *Artists dans la Cité*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a French-American Photography Commission* for photography, *Manu-facto*, the *Skills Factory* and our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³ - Heart, Head, Hand* is the Fou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s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Our *Biodiversity & Ecosystems*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Created in 2008,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directed by Catherine Tsekenis under the presidency of Olivier Fournier, who succeeded Pierre-Alexis Dumas in February 2016.

The Fou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ATELIER
HERMÈS**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연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수요일: 휴관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to 7 PM
Wednesday: Closed
Thursday to Saturday: 11 AM to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to 7 PM

Review publish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entitled *Multipurpose Henry* by Jung Jihyun held at Atelier Hermès from 9 March to 5 May 2019.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Catherine Tsekenis
Head of Communications: Sacha Gueugnier
Head of Projects: Clémence Fraysse
Communications Manager: Maxime Gasnier
Projects Manager: Julie Arnaud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Hong Suh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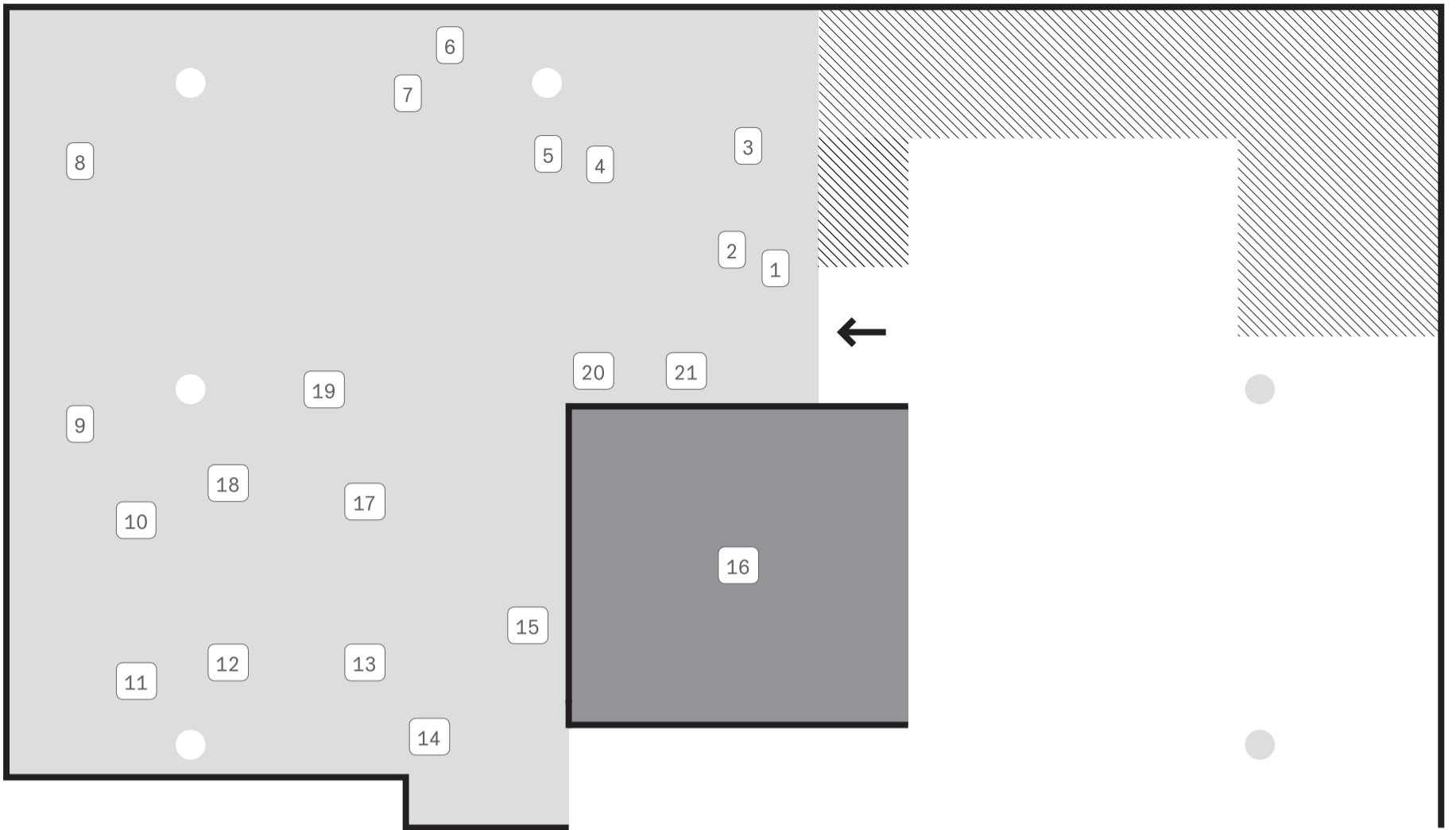
Exhibition Curator & Editor: Kim Yunkyong
Text: Kim Yunkyong
Translator: Choi Kiwon
Graphic Designer: Kang Gyeongtak (a-g-k.kr)
Exhibition Photographer: Nam Kiyong



About the Next: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비주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이의 차별에 대해 사유해온 김옥선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음 전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과 이국적인 제주 풍경, 국제 결혼 부부, 상호문화 가족, 난민 등 인물과 더불어 풍경과 정물로 확장되었던 김옥선의 시선이 다시 '이질적이고 불안정한 위치의 인물'로 전환되는 지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Atelier Hermès is preparing Kim Oksun's new project for its next exhibition, who has thought over differences and discrimination based on her experience as a non-mainstreamer. The intent of the exhibition is to pay attention to the point where Kim's view which expanded to landscape such as exotic scenery of Jeju and still life as well as portraits including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s, multi-cultural families, refugees and immigrants living in Jeju shifts to "people that are exotically and unstably positioned."



- 1 입간판_M Billboard_M
- 2 입간판_W Billboard_W
- 3 테라초 비취 Terrazzo Jade Green
- 4 80년 만담가의 손 80's Comedian's Hands
- 5 동상 A Statue
- 6 나무와 동상 Bronze and Trees
- 7 무한 메탈 Infinite Metal
- 8 더블 데커 Double Decker
- 9 RS 벤치 RS Bench
- 10 공공조각 파일 Filing Public Parts
- 11 마이올 강 Myall River
- 12 무거운 돌, 테라초, 에그 스택 Heavy Stone, Terrazzo, Egg Stack
- 13 멀티퍼포즈 메탈 스퀘어 Multipurpose Metal Square
- 14 무중력 바위 Anti Gravity Rock
- 15 진열장 Display Cabinet
- 16 조각가든 Sculpture Garden
- 17 스캐너 Scanner
- 18 수류탄 든 큰 손 Big Hand with Grenade
- 19 바위책 Rock Book
- 20 입간판_B Billboard_B
- 21 입간판_H Billboard_H

ATE
LIER
HER
MÈ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82-2-3015-3248

Copyright © 2019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contribut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다목적 헨리
2019. 3. 9 – 5. 5

아티스트 토크: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문의 및 예약: 02-3015-3248)

Multipurpose Henry
March 9 – May 5, 2019

Artist Talk:
Saturday, April 13, 2:00 PM – 3:30 PM
(RSVP: 02-3015-3248)